

제주 방언 부정 응답 구문

문순덕*

목 차

- I. 서 론
- II. 의문 - 응답에서 부정어의 기능
- III. 명령 - 응답에서 부정어의 기능
- IV. 청유 - 응답에서 부정어의 기능
- V. 평서 - 응답에서 부정어의 기능
- VI. 결 론

I. 서 론

현대국어에서 부정 응답으로는 '아니다'가 쓰이는데 제주방언인 경우에는 '아니다' 외에 '말다'와 '엇다'가 쓰이고 있어서 그에 관한 제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방언 부정 응답 구문에 관한 연구로는 강정희(1992)가 있는데 '물음-응답, 명령·청유-응답' 체계에서 '아니다'는 현대국어와 동일하지만 '엇다', '말다'가 쓰이는 특성에 대해서 의미·통사·담화론적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부정어인 '말다'는 제주방언과 현대국어에서는 명령·청유문에서 실현되며 대부분의 학자들은 '금지'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다. 서법상 명령·청유문은 동작동사가 서술어가 되어야 하며 동작주의 행동과 관계되므로 이런 문형과 호응하며 동작주의 '행위멈춤'²⁾을 요구하는 부정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존재동사의 부정인 '엇다'³⁾도 '소유'와 '존재'를 의미하는 '잇다'⁴⁾에 대한 부정어인데 제주방언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1) 본고에서 현대국어라는 용어는 표준어인 중앙어를 가리킨다.

2) '말다'는 '금지, 중단, 중지, 단절, 그만두다' 등(신원재, 이상복, 최현배, 한 길)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정의되고 있는데 명령·청유문에서 쓰일 때는 청자의 행위(동작)가 일어나지 않기를 요구하거나 제안하므로 기본 의미를 '행위멈춤'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3) '엇다'와 '웃다'는 이형태이며 현대국어 '없다'에 해당된다. '잇다'와의 비교 논의를 위해서 '엇다'를 기본형으로 설정했다. '없다'에서 어간말자음군 단순화 규칙에 의해서 '엇다'로 실현되었으며 이는 '잇다'의 영향이기도 하다.

4) 현대국어 '잇다'에 해당하며 중세국어에도 제주방언에 나타나는 '잇다, 이시다, 시다, 잇다' 등의 형태가 있었으며 이들의

에서는 부정 응답에 쓰이고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의문·명령·청유문에 대한 부정 응답으로 현대국어와는 다른 부정 응답이 나타난다. (1-24)에서 보듯이 '아니다' 자리에 '아녀'*, '말다/마우다'*, '엇다/어수다'가 발화되고 있다. 이것은 제주방언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 어휘들은 부정 응답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각 어휘별 독자성을 갖고 있다. 즉, '엇다'는 존재동사 '있다'의 부정 외에 '아니다'라는 부정의 의미로도 쓰여서 의미 영역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말다'는 현대국어의 '싫다(어)' 자리에 쓰여서 제주방언인 경우 이 '말다'는 '싫다'의 자리까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부정 응답어인 '말다', '엇다', '아니다'의 의미·통사 특성은 물론 담화 특성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의문 - 응답에서 부정어의 기능

판정의문문이 발화된 명제에 대하여 긍정과 부정 중에서 하나의 응답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설명의 문문은 새로운 정보를 알려 주며 그 물음에 대한 여부를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정 응답이 실현되는 판정의문문만을 논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질문자의 의도, 목적에 따라서 응답자의 반응 즉, 정보가 달라지므로 화자(질문자)의 요구 사항을 잘 파악하고 답변해야 하며 그 요구 정보에 대한 응답으로 '아니다', '엇다' 등이 실현되며 판정의문문인 경우에만 이런 응답이 가능하다. 아래 보기를 통해서 의미·통사·담화 특성을 알아보겠다.

(1) 가. 밥 먹어수과?

나. 엇다/어수다, 아니(아녀)/아니우다, *말다/마우다

(2) 가. 느 오늘 놀았지?

실행은 음운조건에 의한다. '이시다'와 '시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있다'와 '싫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실현된다. 그러나 실행 환경이 규칙적이지는 않으며 '엇다'와 형태상의 통일성과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있다'를 기본형으로 설정해서 논의하려고 한다.

5) 실제 발화에서는 '아니다'보다 '아녀어', '아녀'가 빈번하게 쓰이지만 논의 전개상 형태를 통일하기 위하여 '아니다'를 기본형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아니라', '아녀'가 쓰이며 '아니다'는 잘 안쓰인다. 물론 표준어 교육을 덜 받은 계층에만 해당된다.

6) 제주방언 '마우다, 어수다, 아니우다'에서 형태소 '-우-'는 상대존대 선어말어미이며 실행 어간이 개음절이면 '-우-'가 폐음절이면 '-수-'가 결합된다. (정승철 1994, 현평효 1985, 홍종립 1993 참조)

7) 주 5)에서 설명했듯이 실제 언어 생활에서는 '아니다'는 잘 안쓰이고 '아녀'와 '아녀어', '아녀'가 쓰이는데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다음 분장부터는 '아니다'로 사용하겠다.

나. 엇다/어수다, 아니다/아니우다, *말다/마우다

(3) 가. 느네 어멍 무시거 햄시냐?

나. 엇다/어수다, 아니다/아니우다, *말다/마우다.

(4) 가. 가이 안 놀암시냐?

나. 엇다/어수다, 아니다/아니우다, *말다/마우다.

(5) 가. 느 밥 못 먹어시냐?

나. 엇다/어수다, 아니다/아니우다, *말다/마우다.

각 물음에 대한 응답으로 (나)가 쓰이고 있는데 '엇다'와 '아니다'는 쓰이지만 '말다'는 쓰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말다'는 의문문의 부정 응답에서는 제외된다. 왜냐하면 '말다'는 명령·청유문에서만 쓰이기 때문에 부정 응답인 경우에도 역시 명령·청유문이어야 한다는 통사상의 제약이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판정의문문에서 화자는 객관적(중립적)인 태도를 지니며 화행에 대한 진위 여부를(가부 판정) 묻고 있다. 질문 내용을 긍정하면 '예', 부정하면 '아니다'의 반응이 나온다. (나)의 응답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응답 문장 모두가 생략되었다.

(1가)인 청자의 행위 여부에 대한 화자의 질문에 '먹지 않았다'라는 답변으로 (1나)가 실현되었다. '엇다'는 존재동사인데 부정의 응답으로 사용된 것은 행위의 부재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4)에서 '놀 + 암시 + 냐?'에서 '-암시-'는 '미완료존속상'이며 (5)에서 '먹 + 어시 + 냐?'에서 '-어시'는 '완료존속상'을 나타낸다.(자세한 것은 홍종립 1993, 현평효 1985 참조)

(1-5)에서 존재동사 '엇다'의 부정 대상은 추상적인 존재의 부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밥을 먹었다', '오늘 놀았다',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긍정 전제에는 시제형태소가 결합되어서 행동(동작)의 완료, 지속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행위의 존재로 본다면 그 부정의 의미도 가능하다. 반면에 (4-5)는 부정 물음 - 부정 응답의 쓰임인데 동사 '놀다, 먹다'에 대한 부정 물음이며 그 응답은 부정어가 쓰였지만 실제로는 긍정의 의미이다. 긍정 물음/부정 물음에 대한 응답으로 부정/긍정인 경우 똑같은 부정어가 쓰이고 있다.

(1-5)에서 물음의 서술어는 '동사'이므로 '아니다'가 쓰였을 때는 단순부정의 의미가 있지만 '엇다'가 쓰였을 때는 [+동작]을 부정하고 있다. 그래서 '동작이 지속, 존재'하는 상태를 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지정사가 쓰인 의문문을 살펴 보겠다.

(6) 가. 오늘 보름이냐?

나. 엇다/어수다, 아니다/아니우다, *말다/마우다

(7) 가. 느 오늘 당번가?

나. 엇다/어수다, 아니다/아니우다, *말다/마우다

(6-7)은 '이가?'의 선행 명사에 대해서 그 진위 여부를 묻고 있다. 현대국어인 경우에는 '이다'로 물었기 때문에 그 부정어인 '아니다'만이 응답되는데 제주방언에서는 '아니다' 외에 '엇다'도 쓰이고 있다. 여기서 '엇다'는 '상태 부정'⁸⁾이라 할 수 있다. 강정희(1992: 710-711)는 이때의 " '엇다'는 응답자의 부정적인 반응이 구체적이며 심적 태도가 강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엇다'를 "존재, 상태"의 부정으로 보고 있다.

(6-7)에서 '보름이다', '당번이다'라는 상태가 '오늘' 하루 동안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다'는 '존재, 상태'를 지정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아니다'로 응답한 경우에는 단순히 질문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단순부정으로 볼 수 있으나 '엇다'로 응답한 경우에는 응답자의 의사가 강하게 반영되어서 다른 생각의 여지를 주지 않고 있다. 판정의문문에서는 부정 응답으로 '엇다'가 빈번히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엇다'는 존재·상태동사로서 요구하는 내용의 거부를 '존재의 부재'로 해석할 수 있다.

(8) 가. 느 책 이시냐?

나. 엇다/어수다.

(9) 가. 가이 집이 이시냐?

나. 엇다/어수다.

(8)에서 '이시다(엇다)'는 '소유'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부정 응답이 '엇다'일 때는 '나에게는 책이 없다, 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소유의 부정을 나타낸다. (9가)는 '누군가 ~에 있다.'라는 전제가 성립한다. 화자는 청자에게 '주어가 집에 있느냐?'라는 존재 여부를 묻고 있다. (9나)에서 '엇다'라는 응답은 '존재'에 대한 부정이다. 화자는 주어가 집에 없는 것이 확실하다는 자신의 강력한 확신과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8-9)에서 알 수 있듯이 '엇다'는 '소유와 존재' 상태를 의미하며 '소유, 존재' 대상이 될 수 있는 명사가 선행 요소가 된다. 응답으로 쓰인 '엇다'는 묻고 있는 '소유,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엇다'는 응답에서도 '소유, 존재'의 부정을 나타내며 부정어라는 문법적식 때문에 부정 응답으로 '엇다'가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여기서 '상태 부정'은 형용사를 뜻하는 상태동사가 아니라 문맥적인 의미로 상태 지속(존재)를 부정한다는 뜻이다.

다음은 위 예문을 통해서 담화(화용)론적 측면에서 부정 응답에서의 의미 기능을 살펴 보겠다.

판정의문문에서 초점의 위치에 따라서 질문 내용이 달라진다. 담화론에서 사용되는 '초점'과 '전제'의 정의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서정목 1987: 236)

(가) 한 문장의 焦點(Focus)은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화자가 가정하는 그 문장의 정보이다.

(나) 한 문장의 前提(presupposition)는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것으로 화자가 가정하는 그 문장의 정보이다.

따라서 이익환·권경원(1992: 81)은 "Yes - No 의문문은 일반적으로 가능한 대답을 이접시킨 무의미한 전제를 갖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1가)는 '밥을 먹든지 아니면 안 먹었다.'를 전제하고 있다. 의문문에서 초점의 위치에 따라 응답 내용이 달라진다. 초점이 '밥'에 놓이면 부정 응답인 경우 '밥'을 제외한 다른 음식을 먹었다'가 된다(밥을 제외한 다른 것은 먹었다). (1나)에서 '엇다'는 응답자의 강한 거부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즉 '나는 밥을 먹지 않았다, 먹은 상태가 아니다'라는 응답자의 주관적인 감정이 잘 드러나 있다. 즉 '밥 이랑 마랑(밥은 커녕) 아무것도 안 먹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먹어수과'에 초점이 놓이면 응답인 경우 '먹은 행동'을 부정하며 '떡다'라는 동작동사와 관계된다. '엇다' 응답인 경우에는 '먹음 이랑 마랑(먹기는 커녕)'이라는 주어의 의사가 분명하게 표현되었다. 이때는 '밥'과 관련된 다른 행동이 인정된다. 먹는 행동 이외의 다른 모든 행동이 긍정된다(밥은 보기만 했다, 버렸다, 그냥 갖고 있다 등). 따라서 '엇다'는 '먹었다'에 대한 부정 응답이므로 '행위부정'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먹은 동작의 부정'인데 '밥 먹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먹을 시간이 없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뜻밖의 질문이라는 의식이 내포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부정의 의미가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니다'는 객관적인 단순부정으로 쓰이고 있다. 말하자면 단순히 '먹지 않았다'는 동작의 부정을 나타내고 있다. 초점이 어디에 놓이든 부정 응답으로 (나)가 실현됨을 알 수 있다.

(2가)는 '오늘 놀았든지 안 놀았다.'를 전제한다. '느'에 초점이 놓이면 응답인 경우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놀았다'이며, '오늘'에 초점이 놓이면 '오늘을 제외한 다른 날에 놀았다.'라는 뜻이 된다(나는 오늘 말고 어제 놀았다 등). '놀았지'에 초점이 놓이면 '노는 행위'를 부정하는 응답이 된다(놀지 않고 공부했다 등). 부정 응답 '엇다'는 전제된 질문의 행위를 부정하고 있다. '엇다'를 소유, 존재의 부정어휘라고 하는데 부정 응답에서는 '행위부정'의 의미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행위(동작)부정'이라고 한 것은 '질문의 내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즉 그러한 행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존재부정'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서이다.

(3)은 판정·설명 의문문이 가능하다. '누군가 무엇을 하고 있거나 안하고 있다.'를 전제한다. '무시거'에 초점이 있으면 판정의문문이 된다. '무시거'는 '어머니의 하는 일, 행동' 등을 의미한다. 즉, '어

머니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 인데 '아무것도 안하고 놀고 계시다'는 응답으로 (3나)가 실현된다. 여기서 '어수다'는 '행동의 부재'를 의미하며 '아니다'의 자리에서 실현되고 있다.

(4)는 '누군가 놀고 있다.'는 전제가 성립하며 '그 아이가 놀고 있지 않느냐?' 인데 부정 물음이기 때문에 부정 응답으로 '아니다'가 쓰였지만 실제 내용은 긍정이다. '엇다'에는 응답자의 확인이 들어 있으며 '놀고 있는' 상태 지속의 의미이기도 하다.

(5)는 '밥을 먹지 못했느냐?'라는 물음에 대한 응답으로 '엇다'인 경우 '아니다. 밥을 먹었다'인데 이때 먹는 동작이 완료됨을 알 수 있다. '밥을 못 먹은 동작(행위)'을 부정하는 응답이다. 이때 '엇다'는 질문자의 새로운 정보에 대한 요구를 제공하고 있다. 부정소 '못'의 의미인 타의부정에 대한 거부이기도 하다. 초점이 '느'에 놓이면 '다른 사람은 밥을 먹었는데 너만 못 먹었느냐'는 뜻이며 '밥'에 초점이 놓이면 '너는 밥을 먹지 못하고 다른 것은 먹었느냐' 또는 '지금까지 밥도 먹지 못하고 무엇을 했느냐'라는 위로와 질책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부정소 '못' 대신 '아니'를 대입하면 '안 먹었느냐'가 되는데 이때는 단순부정의 의미로 쓰였다.

표준어의 영향과 표준어 교육을 받은 세대들은 '아니다'를 자주 사용하며 노년층에서는 '엇다' 응답이 우세하다. 그렇다면 이 '엇다'는 질문 내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응답이라 할 수 있다. 질문자의 물음에 응답자의 확실한 의사 표현을 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한 계속 이어질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단정적인 어휘가 사용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아니다'는 물음에 대한 거부의 의미로 '단순부정'의 의미가 강하다고 여겨진다.

(10) 가. 어디 서울서 들읍디가?

나. 엇다/어수다, 아니다/아니우다, *말다/마우다.

(11) 가. 나가 그디까지 갈 말이나?

나. 엇다/어수다, 아니다/아니우다, *말다/마우다.

(10)은 판정·설명어문문이 된다. 판정어문문인 경우 '서울서'에 초점이 놓이면 들은 장소만을 부정하며 그외 다른 장소에서 들었음을 의미한다. '엇다'는 장소(소재)의 부정을 의미하며 '거 낭설로 그냥 다니면서 들었수다.'로 풀이된다. (10)의 '엇다'는 화자의 질문 내용을 부정하고 있다. 청자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청자의 거부 의지가 드러난다. (11)에서 주어가 화자인 경우에는 부정을 전제로 하는데 즉, '나는 거기에 가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발화된 문장은 긍정어문문인데 실제로는 '~지 않겠다'는 주어의 강한 의지가 내포된 부정문이다. (11나)는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다.

의문문의 예에서 보듯이 초점과 관련해서 부정 대상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엇다' 응답의 일차 부정

대상은 서술어이며 '아니다'로 응답할 때와 부정 의미는 비슷하다. 이것은 엇다에도 부정소 '아니'의 기본 의미인 '단순부정'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되며 제주방언 언중들은 '엇다'도 '아니다'와 같이 부정어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명령 - 응답에서 부정어의 기능

명령문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청자의 행동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명령, 요구하는 것이며 화자 중심의 문장이다. 따라서 화자의 청자에 대한 요구 사항에 대한 정보, 반응이 부정 응답으로 실현되는 명령문의 의미·통사·담화 특성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12) 가. 이거 해 불라.

나. 말다/마우다, *엇다/어수다, *아니다/아니우다

(13) 가. 느 장개 가라.

나. 말다/마우다, *엇다/어수다, *아니다/아니우다

(14) 가. 느 이거 먹어 불라.

나. 말다/마우다, *엇다/어수다, *아니다/아니우다.

(15) 가. 밤에 불장난 하지 말라.

나. 말다/마우다, *엇다/어수다, *아니다/아니우다.

(16) 가. 이레 오지 맙서.

나. 말다/마우다, *엇다/어수다, *아니다/아니우다.

(12- 16)에서 알 수 있듯이 명령문은 발화시 현재 청자의 행위(동작)가 일어나기를, 화자의 요구가 관철되기를 바라며 화자의 입장에서 청자의 상황은 무시한 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답시 화자의 긍정, 부정 의사 표현이 강력하게 제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나)의 응답에는 '안하겠다'는 응답자의 거부 의지가 강하게 드러난다.

(12, 14)에 쓰인 '불라'는 '~버리다'라는 보조동사이다. '말다'의 부정 응답은 응답자의 행위(동작) 멈춤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말다'는 주어진 명제의 동사(서술어)를 부정하므로 [+동작]의 의미자질과 관계가 있어서 "하다, 가다, 먹다"라는 행위가 존재하거나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거부한다.

'말다'가 명령·청유문에서는 '행위멈춤'의 기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부정 응답인 경우에도 '행위멈춤'이라는 기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을 하다', '장가 가다', '무엇을 먹다'

라는 긍정 전제에 대한 '행위멈춤'의 응답으로 '이것을 하지 않겠다', '장가 가겠다', '아니 먹겠다' 등의 부정 행위가 실현된다. '말다'가 '아니다'보다 화자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응답에 쓰인 '말다'를 강정희(1992:714)는 '부정적 의지'로 정의하고 있다. (12-14)에서 부정 응답 '말다'에는 '나는 하지 않겠다, 나는 장가가지 않겠다, 나는 이것을 먹지 않겠다'라는 화자의 강한 거부 의지가 들어 있으며 (15-16)에서는 '밤에 불장난 하겠다, 이곳에 오겠다'라는 주어의 의지가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무튼 응답의 '말다'에도 '행위멈춤'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12-14)에서 명령문에 대한 응답으로 '말다/마우다'만이 선택되는 것은 통사 특성과 관계가 있다.

다음은 위 예문을 통해서 담화(화용)론적 측면에서 '말다'가 부정 응답으로 쓰일 때의 의미를 알아 보겠다.

(12-16)의 응답을 보면 현대국어 '싫다(어)' 자리에 '말다'가 쓰였다.

(12)는 '누군가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는다.'를 전제하며 화자의 요구에 대한 청자의 강한 거부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 '말다'에는 '~을 하는' 행위멈춤의 의사가 표현되어 있다. '나는 이것을 하지 않겠다/못하겠다.'라는 의지부정으로도 볼 수 있다. (13)은 '사람은 장가를 가거나 가지 않는다.'를 전제하며 '장가가는 행위'를 부정하는 응답으로 (13나)가 실현되었다. '말다'로 응답하는 경우에는 응답자의 거부 의사가 강력하게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장가가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못하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장가가는 행동의 멈춤'이라는 응답자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 (14)는 '무엇을 먹거나 먹지 않는다.'를 전제하며 (14나)에서도 '말다'는 '먹지 않겠다'는 주어의 의지가 드러난다. '먹는 행위'를 거부하며 동작의 멈춤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청자가 원하는 대로 '먹지 못하겠다'는 '거부'의 뜻이 담겨 있다. (12-14)에서 '말다'에는 '못하겠다'라는 화자의 강한 '거부' 의사가 들어 있으며 '~을 안하겠다'로 대치할 수 있으며 부정소 '못'에는 내부 원인이 들어 있다.

(15-16)은 '부정 명령 - 응답'인 경우인데 현대국어에서는 '말다' 대신 '싫다'가 쓰인다. '평서문'이 전제된(누군가 불장난을 하고 있다/누군가 이곳에 온다.) 문장으로 볼 수 있으며 실현된 문장은 그 '응답'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응답'인 경우에는 '싫다' 대신 '말다'가 쓰이고 있다. '불장난 하겠다'는 주어의 의지와 청자에 대한 '거부'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 (16)은 어떤 일을 할 때 방해될까봐 하는 발화로 볼 수 있다. 여기서도 '말다'에는 '이곳으로 오겠다'는 주어의 의지와, 화자의 거절이 내포되어 있다.

(12-16)의 응답에서 '말다'는 '싫다'의 의미로도 쓰였지만 '못하겠다, 안하겠다'는 주어의 거부 의지도 내포되어 있다. 이때는 '의지부정, 능력부정'의 의미가 있다. 즉 화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 줄 수 없다는, 또는 요구 사항을 하기 싫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말다'에는 주어진 명제에 대한 부정의 내용도 들어 있지만 응답자의 저항감도 반영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본다면 현대국어에서 '말다'는 부정 명령으로 쓰이며 '행위멈춤'의 뜻을 내포하고 있지만 제주방언인 경우에는 '부정 응답/긍정 응답'에서도 '행위멈춤'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정소 '아니'의 의미와 유사한 '주어의 의지', '거부' 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아니', '싫다'의 자리에 '말다'가 쓰여서 현대국어보다 의미범주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IV. 청유 - 응답에서 부정어의 기능

청유문은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행동에 대해서 화자가 청자에게 같이 행동할 것을 요청, 제안하는 청자 중심의 문장이다. 청유문에서 부정 응답으로 쓰이고 있는 '말다'의 의미·통사·담화 특성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17) 가. 우리 이디서 쉬멍 가게.

나. 말다/마우다, 에에, *엇다/어수다, *아니다/아니우다.

(18) 가. 우리 조용히 공부허게.

나. 말다/마우다, *엇다/어수다, *아니다/아니우다.

다.(응), 좋다(아)/아니, 싫다(어).

(19) 가. 밧디서 일허게.

나. 말다/마우다, *엇다/어수다, *아니다/아니우다.

(20) 가. 집이 잇지 말게.

나. 말다/마우다, *엇다/어수다, *아니다/아니우다.

(21) 가. 바당에 가지 말게.

나. 말다/마우다, *엇다/어수다, *아니다/아니우다.

(17-19)에서 보면 부정 응답으로 '말다'만이 쓰이고 있다. 판정의문문인 경우에는 '말다/마우다'가 제외되었고 명령·청유문에서는 '엇다/어수다', '아니다/아니우다'가 제외되었다. 청유문은 화·청자의 공통 의사를 반영하므로 제안, 요청에 대한 부정 응답으로 부정 어휘의 선택 제약은 통사론적 제약에 의한 것이다.

(20-21)의 부정 청유에 대한 응답으로 (나)처럼 부정어휘 '말다'는 '아니다' 대신 쓰였으며 후행 문장은 긍정의 의미이다. 부정 응답 '말다'는 미래에 실천 가능한 제안에 대해서 행위멈춤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나)의 응답에서는 화자의 제의를 거절하는 응답이며 제안하는 명제에 대해서 '하지 않겠'

다'는 뜻이다. 청유문의 특성상 동사가 서술어가 되어야 하므로 부정 응답 '말다'의 부정 대상은 주어인 명제의 서술어를 거절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17-21)에서 부정 응답으로 '말다'만이 쓰이는 것은 청자의 행동을 제안하는 명제인데 그 제안을 거절하는 의사 표시이기 때문이다. 즉 '말다'는 [+동작], '엇다'와 '아니다'는 [-동작]의 의미자질과 관계있음을 알 수 있다.

(17)에서 '아니다' 대신 발화된 '에에'는 젊은층에서 쓰이며 '싫다'는 뜻이다. '말다' 역시 주어의 강한 거부 의지가 드러난다. 즉 주체의 의지를 강력하게 반영하는 어휘이다. '말다'에는 제안에 대한 강력한 거부 의사를 나타내며 다른 거부 이유가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18가)는 부탁의 의미가 내포되었기 때문에 청자의 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말다'가 응답으로 실현되었는데 현대국어인 경우 '아니', '싫다'로 실현된다. 젊은층에서는 '말다' 대신에 '싫다'를 쓰고 있다. 이 '싫다'는 표준어의 영향이며 노년층에서는 실현되지 않는다. (19나)는 '일하자'라는 동의를 요청하는 발화에 대한 부정 응답이다. '말다'에는 '일하기 싫다'는 응답자의 의사가 분명히 나타나 있으며 원인이 어디에 있든간에 '일하지 않겠다'는 청자의 의지가 강력하게 표현되고 있다. (20나)는 '집에 있지 말자'라고 제안했을 때 청자의 반응이며 이때 '말다'는 화자의 제의 거절과 '집에 있겠다'는 '행위 지속'을 나타내고 있다. (21)은 '바다에 가지 말자'는 제안에 응답자는 거부하고 있는 응답으로 '말다/마우다'를 발화하고 있다. '나는 바다에 가겠다'라는 주어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

(20-21)에서 '말다'는 '행위멈춤'을 요구하고 있으며 부정 응답으로 쓰인 '말다'는 그 제의를 거부, 거절하는 강력한 의사를 반영하고 있어서 현대국어 '아니다'보다 응답자의 심리 상태가 잘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문을 통해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제주방언 부정 응답에 '말다'가 쓰이는 것은 '말다'가 주어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어휘임을 알 수 있다. '말다'는 화자가 요구하는 행위를 거부하겠다는 멈춤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보았다.

제주방언에서 '말다'는 명령·청유문에도 쓰이지만 부정 응답에도 쓰여서 현대국어 '아니다'의 자리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다. 즉 '말다'는 청자의 '행위멈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부정 응답에서도 주어의 '행위멈춤'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명령·청유문의 부정 응답에서 '말다'는 현대국어 '싫다'의 영역까지 흡수했으며 '싫다'의 대동사처럼 쓰인다고 볼 수 있다.

현대국어에서 부정 응답으로 '말다', '엇다'가 발화되지 못하는 것은 통사 특성에 기인한다. 명령·청유문의 명제로는 '말다'가 제시되었고 그 응답으로는 평서문이 실현되므로 평서문에는 부정소 '아니', '못'이 쓰이고 '말다'는 쓰일 수 없다는 제약이 적용되었다. 현대국어 사용 언중들의 의식 속에는 부정 응답인 경우에는 부정소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식이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부정어휘는 아니지만

부정적인 반의어인 '싫다'가 부정 응답에서 실현되는 것은 명령·청유문의 명제에 '~해 줄 수 있니?' '~하는 것을 좋아 하니?'가 함축되어 있다고 본다. 그래서 부정 응답에서 '아니다'와 더불어 '싫다'가 쓰인다고 생각된다.

V. 평서 - 응답에서 부정어의 기능

앞에서 의문·명령·청유문에서의 부정 응답 구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여기에서는 평서문과 호응하는 응답에서 부정 응답으로 '엇다'가 쓰이는 상황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2) 가. 난 몰 톱고 는 그냥 걸으니 기분이 좋지 못하다.

나. 엇다/어수다, 아니다/아니우다, *말다/마우다

(23) 가. 공원(公員)이 건 우두머리주게.

나. 엇다/어수다, 아니다/아니우다, *말다/마우다

(24) 가. 무신 병 안 들려수다.

나. 엇다/어수다, 아니다/아니우다, *말다/마우다

(22-24)에서 부정 응답으로 '말다'가 쓰이지 못하는 것은 통사 특성상 명령·청유문에서만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 준다.

(22가)는 '나는 말을 타고 너는 그냥 걸으니 기분이 좋지 않다.'는 뜻으로 화자는 청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청자는 그렇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괜찮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응답이 '엇다'로 실현되었다. 여기서 '엇다'는 '나는 걸어 가도 괜찮다'는 마음의 상태와 화자의 동작이 지속되길 허락하고 있다. 부정 명제에 대한 응답으로 부정어인 '엇다'가 발화되었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존재동사 '있다'의 의미를 나타내며 '상태지속(존재)'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22가)는 주어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부정서술어 '아니하다'를 써야 하는데 *'못하다'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내가 말을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미안한 심정'을 표현하기 위해서라 볼 수 있다. '아니다'도 명제를 부정하고 있다.

(23가)는 '공원이라는 것은 우두머리이다'라는 화자의 단정을 나타내고 있다. 현대국어에서는 지정사 '이다'의 부정 응답으로 '아니다'가 쓰이는데 제주방언에서는 '아니다'가 발화될 자리에 '엇다'가 발화되고 있다. 즉 '우두머리가 아닙니다'라는 뜻으로 '엇다'가 쓰였다. 여기서 '엇다'는 존재부정으로 쓰이고 있다. 즉 '공원은 우두머리다'라는 지정,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24)는 '나는 어떤 병에도 걸리지 않았다'라는 뜻이며 '엇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여기서도 '엇다'는 화자의 말을 부정하고 긍정의 상태가 지속되는 존재 부정으로 사용되고 있다.

평서문에 쓰인 '엇다'는 현대국어 '아니다'에 해당하며 '의문 - 응답에서의 기능'과 같이 주어진 명제를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엇다'로 응답할 때는 응답자의 의지가 분명하게 반영되며 '아니다'와 비교해 보면 부정 정도에서 화자의 심리 상태가 좀더 강하게 반영되었다고 생각된다.

제주방언은 모든 종결형에서 부정 응답으로 부정어 '말다, 엇다, 아니다'가 쓰임을 알 수 있으며 통사 특성에 따라 성립하는 문형이 다를 뿐이다. 그렇다면 '말다'는 명령·청유문인 경우 '명령·청유 - 응답'에 모두 쓰이며 '엇다'는 의문·평서문의 응답에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무튼 '말다'와 '엇다'는 부정어 '아니다' 대신에 쓰이는 것으로 봐서 부정어휘임을 확실히 알 수 있으며 '말다'와 '엇다'의 의미 범주가 넓은 것이 현대국어와 제주방언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VI. 결 론

지금까지 제주방언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부정 응답 구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의문·명령·청유문에 대한 응답으로 '아니다' 자리에 '아녀', '말다/마우다, 엇다/엇수다'가 발화되고 있다. 이것은 제주방언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 어휘들은 부정 응답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각 어휘별 독자성을 갖고 있다. 즉, '엇다'는 존재동사 '있다'의 부정 외에 '아니다'라는 부정의 의미로도 영역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준어의 영향과 표준어 교육을 받은 세대들은 '아니다'를 자주 사용하며 노년층에서는 '엇다' 응답이 우세하다. 그렇다면 이 '엇다'는 질문 내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응답이라 할 수 있다. 질문자의 물음에 응답자의 확실한 의사 표현을 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한 계속 이어질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단정적인 어휘가 사용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아니다'는 물음에 대한 거부의 의미로 '단순부정'의 의미가 강하다고 여겨진다.

'엇다'는 '말다'와 함께 제주방언에서 부정 응답으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말다'는 명령·청유문에서 '엇다'는 의문문과 평서문에서 쓰이고 있음을 보았다. '아니'라는 단순부정으로 응답할 때보다 존재부정의 '엇다'가 쓰이면 응답자의 의사가 분명하게 반영된다는 심리 상태를 엿볼 수 있다. 즉 '아니'가 쓰일 때보다 '엇다'가 쓰일 때는 화자의 의지가 좀더 강하게 표현된다는 심리 상태의 강, 약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현대국어에서 '말다'는 부정 명령으로 쓰이며 '행위멈춤'의 뜻을 내포하고 있지만 제주방언인 경우

에는 명령·청유문에도 쓰이지만 부정 응답에도 쓰여서 현대국어의 '아니다'의 자리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어 사용된다. 즉 '말다'는 청자의 '행위멈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부정 응답에서도 화자의 '행위멈춤'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부정소 '아니'의 의미와 유사한 '주어의 의지', '거부' 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아니', '싫다'의 자리에 '말다'가 쓰여서 의미 범주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대국어에서 부정 응답으로 '말다', '엇다'가 발화되지 못하는 것은 통사 특성에 기인한다. 명령·청유문의 명제로는 '말다'가 제시되었고 그 응답으로는 평서문이 실현되므로 평서문에는 부정소 '아니', '못'이 쓰이고 '말다'는 쓰일 수 없다는 제약이 적용되었다. 현대국어 사용 언중들의 의식 속에는 부정 응답인 경우에는 부정소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식이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부정어휘는 아니지만 부정적인 반의어인 '싫다'가 부정 응답에서 실현되는 것은 명령·청유문의 명제에 '~해 줄 수 있니?' '~하는 것을 좋아 하니?'가 함축되어 있다고 본다. 그래서 부정응답에서 '아니다'와 더불어 '싫다'가 쓰인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부정어인 '말다, 엇다'가 명제로는 물론 부정 응답에서도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제주 방언 언중들의 의식 속에는 '말다', '엇다'를 '아니다'와 같이 부정어로 인식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부정 응답에서 쓰이고 있는 부정어들의 의미영역이 분명하게 구분되지는 않지만 부정어라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부정 응답에서도 발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정희(1992), “제주방언 물음-응답 부정표현 체계에 대하여”, 국어학연구백년사, 일조각.
- 김동식(1980), 현대국어 부정법의 연구, 국어연구 42, 국어연구회.
- (1990), “부정법”,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 김성화(1989), “-[지/다가/고] 말-’의 의미기능”, 국어국문학 102, 국어국문학회.
- 박양규(1975), “소유와 소재”, 국어학 3, 국어학회.
- 박영준(1991), 국어 명령문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 박정규(1995), 국어 부정문의 의미와 통사 연구, 서강대 박사논문.
- 박종갑(1987), 국어 의문문의 의미기능 연구, 영남대 박사논문.
- 서정목(1987), 국어 의문문 연구, 탑출판사.
- 서정수(1994), 국어문법, 뿌리깊은나무.
- 성광수(1976), “존재동사 ‘있다’에 대한 재고”, 한국어문논총(우수 강복수 박사 화갑 기념 논문집).
- 신원재(1987), “현대국어 부정표현에 관한 연구”, 서울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신창순(1971), “한국어의 부정”, 조선학보 58.
- 유동준(1983), “국어 부정문의 화용론”, 연세어문학 14·15집,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 이상복(1979), “동사 ‘말다’에 대하여”, 연세어문학 12,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 장경기(1986), “국어 부정 의문문과 전제”, 어학연구 22-1, 서울대 어학연구소.
- 장경희(1982), “국어 의문법의 긍정과 부정”, 국어학 11, 국어학회.
- 장석진(1985), 화용론 연구, 탑출판사.
- 정승철(1994), 제주도 방언의 통시음운론, 서울대 박사논문.
- 최현배(1986), 우리말본, 정음사.
- 한 길(1977), “한국어 부정어에 대한 연구- ‘아니다, 없다, 말다’의 해체 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논문.
- 홍종림(1993), 제주방언의 양태와 상, 한신문화사.
- 현평효(1985), 제주방언연구(논고편), 이우출판사.
- Givon, Talmy(1979), On understanding Grammar, new york: Academic press.
(이기동 역(1981), [문법이해론], 범한서적주식회사).
- Stephen C. Levinson(1983), Pragma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이익환, 권경원 역(1992), [화용론], 한신문화사).